

“매년 새로운 도전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웹스에 너저분한 현수막 보고 광고 아이템 발굴 광주·전남 업체서 문의 쇄도...매출 3천만원 기록



펜스타일 장근호 대표

“매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신을 한 단계씩 성장시켜 나간다는 신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 펜스타일 장근호 대표(35)의 삶이 활짝이다. 지난해 4월 동강대와 광주 북구청 청년창업 사업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 중인 장 대표는 웹스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업 아이템은 웹스에 너저분하게 걸린 현수막을 보고 떠올리게 됐다”면서 “고객이 원하는 광고 또는 디

자인에 이미지 퍼즐을 웹스망에 끼우는 방식으로 환경미화는 물론 시각 효과의 장점이 있다”며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기업체와 학교까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구매 문의가 이어져 현재까지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유망업체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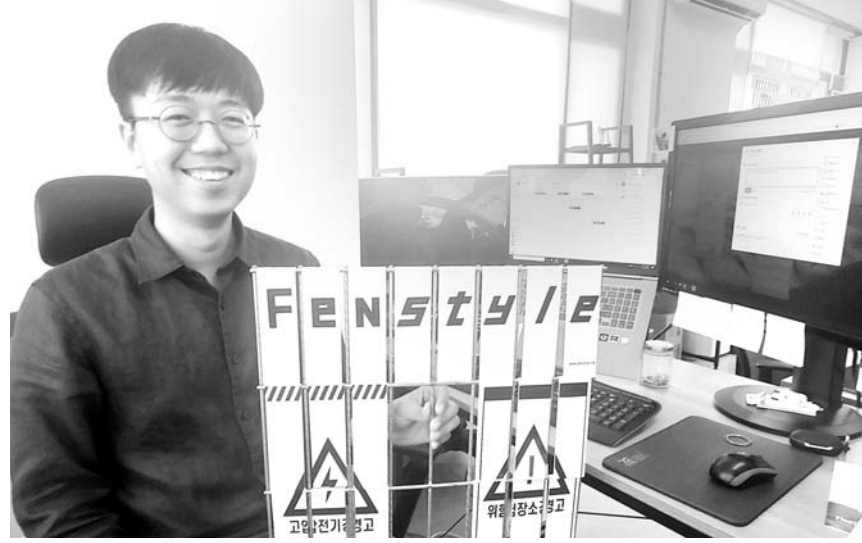
현재 장 대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자유와 책임감을 강조한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장 대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했다. 단 전제조건으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늘 도전하고 꿈꾸는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지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펜스타일 사업을 하기 전까지 장 대표는 다양한 도전을 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은 물론 번리사 준비를 위해 공부에 매달렸으며, 지인과 함께 한 사업에서 실패라는 쓴맛도 봤다. 그럼에도 늘 도전하며 살겠다는 소신을 잃지 않았다.

휴식기를 통해 장 대표는 지금의 웹스 광고 디자인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했으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열린 건축박람회를 통해 사업에 확신을 가졌다. 장 대표는 현재 디자인에 필수인 인쇄방식부터 타일의 재질 등 시행착오를 거쳐 세 번째 시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장 대표는 “최종 목표는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것이다”면서 “올해는 펜스타일의



오너였다면, 내년엔 30억 매출, 그다음에는 영어회화마스터 등 매년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로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라’는 말을 전했다.

장 대표는 “법 학과를 졸업하다 보니 주변에 공시생이 많다. 현실에 맞춰 취업을 하거나 막연히 준비한 공무원 시험 준비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를 본다”면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국내대학 10위권 ‘눈 앞’ 전남대 CWUR 평가 총점 74.7점·세계 455위

전남대학교가 비영리 교육단체인 CWUR이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국내 1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기관들의 잇따른 대학평가에서 10위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인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이 세계 2,0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2020 CWUR 평가 결과 전남대는 총점 74.7점으로 국내대학 10위권에 불과 0.3점이 부족한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연속 이어진 순위이자, 거점국립대 3위에 해당한다. 세계 순위는 455위이나 연구수행력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428위를 기록했다.

앞서 전남대는 로이터 뉴스의 ‘2019 아시아-태평양 최고혁신대학’ 평가에서 국내 13위, 거점국립대 2위, 아시아 5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는 국내 14위, 아시아 55위였다.

이 평가에서 전남대는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 성공률이 무려 87.9%로 서울대, 칭화대, 도쿄대 등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 타이완대학의 ‘세계대학의 과학은 문 성과’에서도 전남대는 국내 11위, 거점국립대 2위, 세계 42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13위, 세계 459위였다. 24개 주제별 순위에서 농·공학, 자연과학 분야가 특히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조기철 기자

최상위권 학생들 ‘특별관리’

시교육청, 시험유출 사립고 교사 40여 명 징계 요구

시험지 사전 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하고 학사행정도 파행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 등 교사 40여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중징계 대상학교로 지정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시험문제 사전 유출을 비롯해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 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 크고 작은 파행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달 치러진 3학년 지필고사 2차 ‘기하와 벡터’는 특정 수학동아리에 한 달여 전 미리 배부된 유인물 중 5문항이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렀다.

또 지난해 1학년 지필고사 수학의 경우 절대등급 상·하에서 8문항, 토요 논술교실 유인물에서 한 문항이 출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문항들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교재로 사용된

의혹이 제기돼 수사 의뢰키로 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2017~2019년 시험문제 중 고난도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76.2%) 문항이 특정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와 일치했다.

서울형 평가도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점기준표를 문항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채점 이후 결재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상위권을 특별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1·2·3학년 모두 성적순으로 우열만을 편성 운영했으며,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합 대상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우수 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했다.

교육과정도 파행 운영했다.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해 생명과학 I, 물리학 I, II를 필수로 지정 운영했다. 다른 일반계 고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학 II를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해 최상위권의 내신성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조기철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자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시민모임 “근로정신대 지원법 마련” 촉구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강제징용에 끌려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군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시민모임은 “오해와 냉대 속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 다녀온 일’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다”며 “그것은 명예회복과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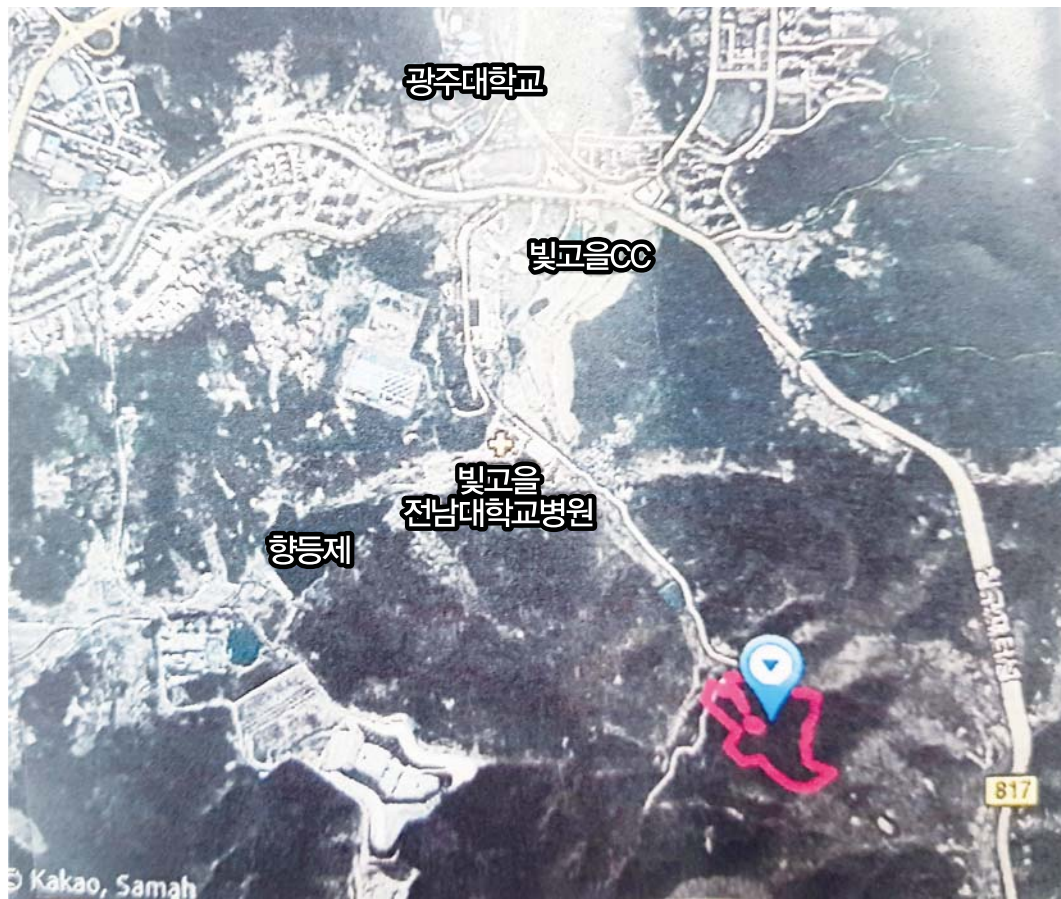
“목적지 바뀌” 대리기사 폭행

○·목적지 변경 문제로 시비가 돼 대리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서행.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새벽 0시 55분께 서구 금호동 한 길거리에서 목적지를 변경해주지 않자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기준 목적지를 변경하려면 대리비를 더 줘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바꾸려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며 “술김에 휘두른 폭력 때문에 집 대신 경찰서에 오게 됐다”고 혀를 끌끌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